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서 작품 즐기기



미로카페·책방·창작방 등 젊은 작가들 발걸음·SNS서 화제 '큐레이트 광주' 전 탐방·전시·체험

'미로센터에서 놀자.' 이달 초 공식 개관한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 다녀왔다. 이곳을 처음 찾은 이라면 좁다란 예술의 거리 길들을 떠올리며 생각보다 널찍한 공간에 조금은 놀랄지도 모르겠다. 센터 구석구석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간이 많아 벌써부터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젊은 작가, 기획자들이 발걸음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술의 거리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2019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어우러져 운영되는 '미로센터'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발전소이자,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다. 현재 개관 기념 공간 디자인 및 특별 전시 '큐레이트 광주(Curated Gwangju)'가 열리고 있어 공간 탐방과 함께 전시 관람, 프로그램 체험도 할 수 있다.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A동의 '미로카페'다. 현재는 미로센터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예술 커뮤니티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카페 옆에는 작은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예술가의 방'이 자리하고 있다

2층의 '미로방방'은 미로책방과 미로창작방으로 구성돼 있다. 책방은 고급스러운 공간디자인과 인테리어 소품이 눈에 띈다. 현재 도시 관련 책자와 광주 전담을 소개하는 책자를 기증받거나 구입해 구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서를 늘려갈 생각이다. 창작방 역시 단순한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기획으로 꾸러진다. 센터 이웃한 중앙 초등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는 예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조근호·김선미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나는 '공동의 예술가들'이 열리고 있다.

3층의 미로 스튜디오는 작가 레지던스 공간이다. 러시아의 나탈리아 카메네츠키야 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작가 7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다 다시 광주로 돌아온 예술가들이 참여한 '리턴 작가'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획으로 눈길을 끈다. 12월 4-6일에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B동은 기존의 무등갤러리와 이어진 무등갤러리 2와 미로라운지, 82석 규모의 미로극장으로 구성돼 있다. 미로라운지는 다양한 행사와 기획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이다. 내년 1월20일까지는 검은책방 한책방, 타인의 책, 지음책방, 책과 생활 등 동구 지역 작은 책방들이 함께 참여한 북큐레이션 기획 '모두의 라이브러리'가 진행중이다.

'큐레이트 광주' 주제에 맞춰 광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키워드로 센터 곳곳을 꾸민 흥미로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무등산, 송정역 시장 등 광주 곳곳을 기억하고 작업하는 '작가의 방'을 일러스트 공간으로 연출한 이화 작가의 '상상', 계단과 공간을 레고로 채워나간 한여원 작가의 '시그니처', 전일빌딩 총탄 흔적을 모티브로 한 정희경 작가의 '이백오십미터(물리적 기억)', 플로리스트 신성창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진실' 2 이화 작 '상상' 3 '5·18'을 소재로 한 향수 4 미로센터 2층에 자리한 미로책방



유연대 작 '산'

무등산분청사기협, '무등산' 전 12월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광주·전남 미술현장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고, 실험성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 미술단체에 전시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단체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무등산분청사기협회가 전시 기회를 얻어 '무등산' 전(12월1일까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등산을 형상화한 작품부터 현대적인 생활자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들은 다채로운 색감과 기법, 형태, 문양들로 무등산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강현식, 김기현, 김송기, 김수정, 남태운, 라필주, 민숙영, 박미경, 박유심 등 22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무등산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인 15-16세기에 광주 충효동 일대에서 생산됐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사이를 잇는 우리 민족 고유의 도자기 양식이며, 무등산은 충남 계룡산과 함께 대표적인 우리나라 도자기 산지로 알려져 있다. 상감(象嵌)·인화(印花)·조화(彫花)·귀얄 기법으로 장식한 무등산 분청사기는 조선의 재정을 뒷받침했던 공납(貢納) 도자기로 중앙의 관청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사용됐다.

2012년에 창립된 무등산 분청사기협회는 무등산 분청사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무등산 분청사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도예인이 뜻을 모아 설립된 단체로 무등산 분청사기의 재현 및 현대화, 인재육성, 학술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무대 등이 설치된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26명의 청소년들이 예술의 거리를 탐방한 후 이미지를 그렸고 이를 기성 작가들이 타이틀 구워낸 300개의 작품이 어우러진 '미로-스택트럼'은 예술의 거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유리로 외관을 치장한 '별관 미로'는 아가자기한 공간으로 지역 음악인들이 디제잉을 하거나 지역 아트 상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광장은 가드닝 작업을 통해 초록빛 공간으로 변신한다.

개관 기념으로 11월초부터 진행된 '새터데이-밤의 미로' (사전예약)는 22-23일 오후 6시-9시까지 시민들을 찾아간다. 정해영·최재영 등 예술의 거리

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작가들과 정운학 작가가 참여해 '그림 읽는 품격의 수다 살롱', '작가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조명등', '미로 속 점선면' '미로를 밝히는 소리', 예술의 거리 야간 산책 '미로와 미로사이-밤의 몽타주', '미술심리 요

가치료' 등을 진행하며 공연프로그램 '이웃집 뮤지션'에서는 23일 소영의 콘서트가 마련된다. 일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치료' 등을 진행하며 공연프로그램 '이웃집 뮤지션'에서는 23일 소영의 콘서트가 마련된다. 일요일 휴관.

가치료' 등을 진행하며 공연프로그램 '이웃집 뮤지션'에서는 23일 소영의 콘서트가 마련된다. 일요일 휴관.

- 1 플로리스트 신성창 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진실' 2 이화 작 '상상' 3 '5·18'을 소재로 한 향수 4 미로센터 2층에 자리한 미로책방



청년문화허브, ACC에 '나미야 비밀우체국' 운영

비밀편지, 비밀답장 컨셉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나미야 비밀우체국'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펄컨마을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라운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나미야 비밀우체국'은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영감을 받아 (사)청년문화허브(대표 정두용)가 201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살다보면 내 고민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싶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딱히 없거나, 주변에는 비밀로 하고 싶다는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울 때가 있다. 나미야 비밀우체국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참여자는 비밀우체통, 손편지, 이메일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비밀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받아볼 수 있다. 편지에 대한 답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나미야 할아버지들이 해준다. 현재 50명 정도의 자원활동가가 전국에서 도착하는 월 100통이 넘는 편지에 답장을 하고 있다.

나미야 비밀우체국을 이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손편지를 써서 직접 비밀우체통에 넣는 것



나미야 비밀우체국

이다. 우체통에 자신의 사연을 넣으면 매주 수요일 편지를 수거하며 나미야 할아버지의 답장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손편지(광주 동구 공동 52-2, 3층 나미야 할아버지 앞), 이메일을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나미야 비밀우체국 블로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강수 초청 '김원중 달거리 공연' 25일 광주피크뮤지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땀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오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피크뮤지홀(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에서 열린다.

111번째를 맞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열망의 부족'이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2019 전국투어 '치유와 화해, 그리고 경계를 넘어'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부족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 광주, 정읍, 순천, 여수, 거창, 산청의 길 위에서 만난 평화의 염원으로 한반도의 닫힌 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았다.

공연에는 김원중과 느티나무밴드, 줄타의 블루스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 사진작가 리원철 등이 출연한다.

또 주중 화가가 샌드아트에이션 공연을 펼치고 클래식 테마, 크로스오버, 퓨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는 재즈 그룹 '강운숙의 재즈여행'도 무대에 오른다.

이달의 초대손님은 싱어송라이터 박강수다. 2001년 '부족한 사랑'으로 데뷔, 10장의 음반과



박강수

100여 곡이 넘는 자작곡을 발표했으며 이날 자연을 담은 노랫말과 맑은 음색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입장료 대신 공연 이후 관객이 감동 만큼의 금액을 모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땀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청년문화일자리 토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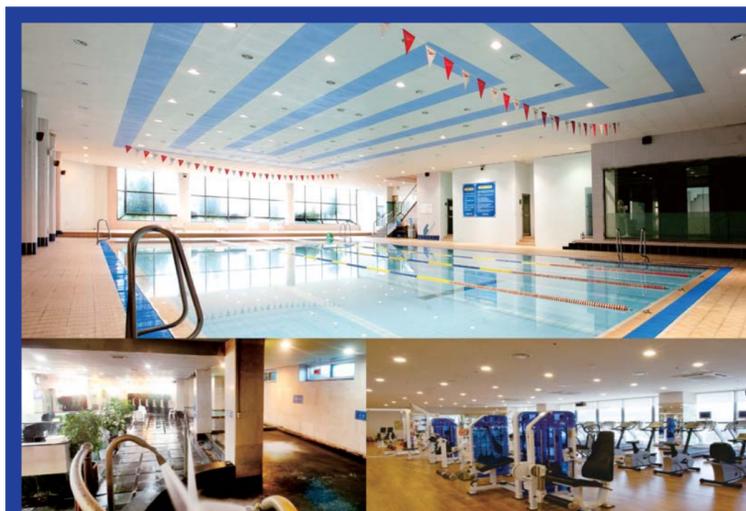
25~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예술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청년문화일자리 토크콘서트-덕업일치'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간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광주문화재단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덕업일치'를 주제로 문화콘텐츠와 온라인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25일에는 온라인 통합 마케터 장재동 강사의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꿀팁'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서 3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관광 콘텐츠 분야의 유명 플랫폼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여행을 꿈꾸다, 여행이 직업이 되었을 때'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한다.

26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 파워블로거 등 수많은 직업을 가진 박세인 대표의 '생각대로 사는 삶? Think and Do'를 통해 나 자신을 브랜딩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또한 연계행사로 무료 취업사진 촬영이 진행돼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고 파일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터넷과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 구분 | 월 | 6개월 | 1년 |
|----|-----------|-----------------------------|-----------------------------|
| 개인 | ₩ 300,000 | ₩ 1,200,000 (월 ₩200,000) | ₩ 2,000,000 (월 ₩166,670) |

-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